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유행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점검

-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8.14)
- 치명률 낮고 백신과 치료제 등 중증화 관리 수단 있어 초기 유행과는 달라
- 정부는 의료체계,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 등 대응자원 충분히 확보할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4일(수) 16시 30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방청(청장 허석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 <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 관계부처 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4.8.14.(수) 16:30 ~ 17:10, 보건복지부 회의실 (화상연결)
- ▶ (주요논의 안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방향, △코로나19 유행 동향 분석 및 위기단계 조정 검토,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현황 및 전망,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자가검사키트 생산현황 등
- ▶ (참석) 보건복지부 장관(주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질병청 질병관리청장, 기획조정관, 감염병위기관리국장, 감염병정책국장, 질병데이터 과학분석관, 의료안전예방국장, 진단분석국장, 국조실 보건정책과장, 교육부 학생건강 정책과장,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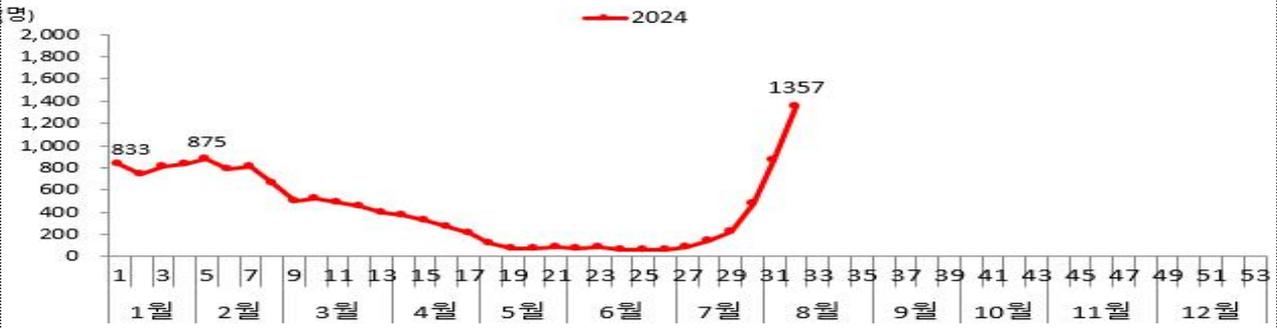
금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감염 예방 수칙, 예방접종, 의료대응체계, 자가검사키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코로나19 유행 동향】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8월 2주차 입원환자수(1,357명, 잠정)가 올해 정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4주 입원환자수 : (7.3주) 226명 → (7.4주) 475명 → (8.1주) 861명 → (8.2주(잠정)) 1,357명

[ (2024년(1.1.~8.10), 주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추이 ]



\* '24.1.1.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 의료기관(220개소)에서 매주 급성호흡기감염증(ARI) 입원환자 수를 신고한 잠정 통계 수치임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22, '23년) 여름철(7~8월)에도 유행하였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당분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6월)2,240명 → (7월)11,627명으로 중·경증 환자 모두 증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여,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행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 상황실을 설치하여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공병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구급대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이송 전·후 구급차 및 장비를 소독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전한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에 환자를 신속 이송하고, 특히 경증환자는 발열클리닉, 협력병원 등에 우선 이송하여 응급실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2023년도 여름철의 사용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치료제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치료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간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6.23.~6.29.) 1,272명분 대비 7월 5주(7.28.~8.3.) 42,000명분 이상으로 증가

금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확보한 치료제가 공급되기 시작하며, 8월 마지막주(8.25.~8.31.)부터는 전체 담당 약국에 여유분을 고려한 치료제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치료제 이용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건보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험급여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그간 국내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생산을 축소해 왔으나, 최근 7월 말부터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기술·능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8월 내 약 500만 개 이상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 참고로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은 주당 4,000만 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한 이력이 있음('22년 8월 2주 기준)

### **【코로나19 예방 강화】**

질병관리청은 방역 당국의 권고 사항을 종합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오늘(8.14.) 개최되는 전문가 참여 민관협의체에서 내용을 확정한다. 일상생활,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 등 다각적 측면에서 예방수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4~20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에 더욱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 변이 등 대응)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백신 허가 및 도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 계획은 9월 중 발표 예정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접종 가능하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교육부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발생한 경우 학생의 건강 회복을 위해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와 가정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개학 후에는 각급학교에서 개인방역수칙 준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관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당초 1개 반 2개팀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1개 반 5개단 12개 팀으로 확대하여 유행 상황 조사·분석, 국외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고위험군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및 보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기간 동안 사람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는 중증도와 치명률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초창기 코로나19와 전혀 다르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023년도(1~8월)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 수준이고, 특히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므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면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와 백신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 강조하는 동시에, “다음 주부터 추가 확보되는 치료제가 차질없이 공급되어 치료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보영 (044-202-2510)
		담당자	사무관	강현주 (044-202-250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팀	책임자	팀 장	양진한 (044-202-1770)
		담당자	사무관	서승완 (044-202-1756)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이은주 (044-202-2752)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박장호 (043-719-9051)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대응TF	책임자	팀 장	김동근 (043-719-7150)
		담당자	연구관	현정희 (043-719-7141)
		담당자	연구관	서순려 (043-719-7195)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치료제관리팀	책임자	팀 장	박지영 (043-719-9150)
		담당자	사무관	윤다솔 (043-719-9152)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은진 (043-719-8140)
		담당자	연구관	이지은 (043-719-8220)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동우 (043-719-8360)
		담당자	사무관	이우건 (043-719-8365)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유효순 (043-719-7550)
		담당자	역학조사관	정재화 (043-719-7563)
담당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용 (043-719-3731)
		담당자	사무관	최원정 (043-719-3732)
담당 부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진형 (043-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3-203-6547)
담당 부처	소방청 119구급과	책임자	과 장	유병욱 (044-205-7630)
		담당자	소방경	신혜원 (044-205-7722)

